



심기석 세일이엔에스(주) 대표(사진 오른쪽)가 최상홍 한일엠이씨 회장(사진 가운데)으로부터 여성설비인상을 받고 있다.

심기석 세일이엔에스(주) 대표, 대한설비공학회 총회에서 여성설비인상 수상

심기석 세일이엔에스(주) 대표가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대한설비공학회 정기총회에서 최상홍 인제대 총장에게 최초로 신설된 여성설비인상을 수상했다.

여성설비인상은 최상홍 한일엠이씨 회장이 지난 1996년부터 대한설비공학회에 '최상홍상'을 신설한 후 올해 창립 50주년 기념으로 신설함에 따라 기계설비업계 발전에 공헌한 여성 설비인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상이다.

심기석 대표는 "기계설비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여성 기계설비인들을 대표하여 처음으로 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쁘다. 그동안 부활주야를 가리지 않고 부단히 노력했던 지난날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오늘이 있기까지 많은 가르침과 적극 지원을 해주신 정승일 회장님과 많은 바 업무에 충실한 직원들,

그동안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기계설비인들께 감사드리며,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심기석 대표는 지난 1973년 세일설비공업사(현 세일이엔에스)에 평직원으로 입사한 후 투철한 책임감과 진취적인 업무처리로 대표이사에 오르는 등 기계설비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여성의 섬세함과 남성의 저돌적인 업무 스타일을 두루 갖추고 있으며 성실과 신뢰로 세일이엔에스의 명성을 굳건히 하고 있다. 이밖에 기계설비업계 여성 CEO를 중심으로 학계, 업계, 설비설계 등에 종사하는 여성 기계설비인들의 품위유지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음으로써 여성 기계설비인들의 리드하고 있다. 

세일이엔에스(주)는 1970년 세일공업사로 출발하여 1980년 세일설비(주)로 법인전환, 2005년 세일이엔에스(주)로 상호변경,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도체 생산 공장을 비롯 대형빌딩, 호텔, 병원, 아파트, 리모델링 등 모든 용도의 건물을 첨단자동화시설의 공장을 활용하여 양질의 시설물을 건설하는 기계설비 전문건설업체이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한 윤리경영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아 오랜 경험에 의해 축적된 기술력과 우수한 인적자원의 안정된 조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ISO 9001 품질인증 및 ISO 14001 환경인증과 더불어 KOSHA 18001 안전인증을 취득함으로써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전 임직원이 무재해 사업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녹색경영활동에 적극 참여 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폐기물 및 용전용수 등의 저감활동과 더불어 정기적인 그린데이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 최초로 우수그린비즈 인증(중소기업청, 2013년)을 취득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